

God...My Father!

하나님... 나의 아버지

Saturday 31 Oct. 2009

1. We are not merely created as creatures, but as sons!

우리는 단순히 창조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졌다.

Adam was created as God's son (Luke 3:38).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다.(누가복음 3:38)

We have been made in God's image and likeness.

우리들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It is clear that this idea relates to being 'sons' of God (e.g. Genesis 5:1-3).

이 생각은 명백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창세기 5:1-3)

Sons are like their fathers.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를 닮는다.

His image may be seen in them.

아버지의 형상은 자녀안에서 보여진다.

- The term 'son' does not just mean 'male child', but in the Bible it refers to status.

'아들'이란 용어는 단지 남자 어린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신분을 뜻한다.

- In terms of status, men and women, boys and girls may all be sons of God.

신분의 측면에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소년과 소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 Indeed, the whole of God's Old Testament people Israel was, corporately, the 'son of God' (e.g. Exodus 4:22 compare with Galatians 3:26-29).

실로,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출애굽기 4:22 과 갈라디아서 3:26-29 를 비교하라.)

- This means that the most important relationship that a human being can ever know is to have God as his or her Father.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관계임을 의미한다.

- This is what we are created to know and to enjoy.

이것은 우리가 뭔가를 알고 즐기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It is our highest dignity as a human being.

그것이 인간으로서 우리의 가장 높은 존엄성이다.

By contrast, the most demeaning thing for a human being is to have some other 'father' (e.g. Jeremiah 2:26-28 compare with Ephesians 3:14-21).

반면, 인간의 품격을 가장 떨어뜨리는 것은 또 다른 '아버지'를 갖는 것이다.(예레미야 2:26-28 과 에베소서 3:14-21 을 비교하라)

- Jesus uses a wonderful word to describe that relationship...the word *Abba*.

예수님은 관계를 설명하는 놀라운 단어를 사용하셨다...아바

- This is a word from the ancient language that Jesus spoke, called Aramaic.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람어라 불리는 고대언어로부터 나온 말이다.

- However, the word is still preserved in some languages today (e.g. Urdu), and other languages have words very similar to it (e.g. Baba; Apa; Oba; Papa; etc.)

그러나, 이 말은 몇몇 언어 속에 오늘날도 여전히 남아있다. (예. 우르드어; 인도유럽어족의 인도이란어파에 속하는 언어; 파키스탄 공용어, 인도에서도 사용) 그리고 다른 언어들은 그것과 매우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있다. (예. 바바, 아파, 아바, 파파... 등등)

- Jesus used this word (e.g. Mark 14:36) and because of his work in bringing us back to our Father, we are able to use it too, by the Spirit of God (e.g. Romans 8:15; Galatians 4:6).

예수님은 이 단어를 사용하셨고 (마가복음 14:36) 우리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사역 덕분에 우리들 또한 성령님에 의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로마서 8:15; 갈라디아서 4:6)

- This word is one that conveys all the warmth, tenderness, intimacy, love, trust and affection that a toddler would have for

his or her father...except this is how we can call to God the Almighty,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이 단어는 어린 아이가 그들의 아버지에게서 얻는 따뜻함, 부드러움, 친밀함, 사랑, 믿음과 애정을 전해준다....이 단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천지창조주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는가!

2. *We come to know God as our Father by forgiveness*

우리는 용서에 의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게 된다.

- While we were created to know God as our Abba, we have all turned aside from him and exchange the truth of who he is for a lie (Romans 1:18-32).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서 알도록 창조되었으나 우리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진리이신 주님을 거짓으로 부인했다. (로마서 1:18-32)
 - We have become 'children of wrath, and sons of disobedience' (Ephesians 2:1-3).
우리는 격노하는 자녀, 불복종의 아들이 되어갔다.
(에베소서 2:1-3)
 - We have a false 'father' who rules over us (e.g. John 8:39-47), and who hates the true Father.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고, 진리의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짓된 아버지가 있다.(요한복음 8:39-47)
 - This means we must be set free to love the true Father, and released from our bondage (e.g. John 8:34-36).
이것은 우리가 진리의 아버지를 사랑함에 자유로워져야 하고, 속박에서 해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8: 34-36)
- Jesus has come to destroy the works of the devil, the false father who rules over the world (1 John 3:38) and this he does by the work of his cross (John 12:27-33).
예수님은 세상을 지배하는 거짓된 아버지, 악의 사역을 멸절하러 오신다.
(요한일서 3:38)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
(요한복음 12:27-33)

- By the work of the cross, Jesus brings us the true knowledge of the Father by removing our sin and guilt, and releasing us from wrath and judgement (e.g. 1 John 4:7-14).

십자가사건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죄악을 제거하시고, 격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우리를 아버지의 참진리로 인도하신다. (요한 1서 4:7-14)

- Jesus is God's beloved Son, who has shown us exactly what the Father is like (John 1:18; 14:8-10; Colossians 1:15; Hebrews 1:1-4)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며, 그는 우리에게 아버지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다. (요한복음 1:18 14:8-10: 골로새서 1:15:히브리서 1:1-4)

- He is the only way to the Father (John 14:1-6). As we believe in him we are united to him, and so are adopted sons of the Father in Jesus (Romans 8:1-25)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요한복음 14:1-6)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서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되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입양된다. (로마서 8:1-25)